

곡성군, 농정발전협의회 열어 자치분권 농정 '구현'

4년 만에 대면 방식 27건 논의
10대 쌀 백세미 포장재 지원 등
국도비 공모 발굴 예산 반영 조치
'쌀 소비 촉진 결의대회' 병행

곡성군이 지난 12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지역 농정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협의회가 열린 것. 협의회를 통해 쌀 소비 촉진 결의대회 등이 열려 쌀 산업 재도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2025년도 농·축협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제안된 27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력사업에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촉진 지원사업'과 '전남 10대 브랜드 쌀 백세미 포장재 지원사업', '농작업 대행용 농기구 구입지원', '양곡보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스마트가축시장 플랫폼

품 도입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곡성군은 제안사업 27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국도비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동시에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쌀 소비 촉진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쌀 산업의 재도약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 2011년부터 곡성군과 지역 농·축협은 '농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곡성군이 지난 12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지역 농정 발전 협의회'를 열고 쌀 소비 촉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곡성군 제공**

시책을 발굴하는 등 농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앞으로도 군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농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지역농

협과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치분권 농정을 구현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함평군, 취약계층 우선

함평군이 19일부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미만)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5가구에 선착순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6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27홀 안창 파크골프장 첫 삽
나주시, 2025년 5월 준공 목표

나주시가 남평읍에 이어 영산포 권역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안창동 573번지 일원 총 27홀 규모 '안창 파크골프장' 조성 착공 기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안창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남평 지석천(36홀)에 이은 안창 파크골프장 조성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 걸쳐 국민 생활여가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해왔다.

8월 말 기준 나주시 파크골프 동호회는 20개 클럽, 약 800여명에 달한다.

시는 2023년 8월 실시하게 운영 발주를 시작으로 영산포 권역인 영강·이창·영산동주민협의체, 나주시파크골프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추진했다.

파크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안창동 제창마을 주민들과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하천 점용 허가를 위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를 지난 5월 완료했다.

작곡식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위원장, 최명수 도의원과 지역 시의원, 김재억 체육회장, 염용준 파크골프클럽회장, 이기준 영산포발전협의회장, 나광수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관광 명물인 양암바위가 보이는 안창 파크골프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영산강 천혜 경관을 갖춘 전국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즐거움·낭만 가득 가을축제 '다채'
곡성군, 심청어린이대축제 등

곡성군이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로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곡성에서 펼쳐지게 될 축제와 음악회는 꽃과 음악, 멋과 흥으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황강 자연휴식공원'에서 '석곡 코스모스음악회'가 열린다. 대황강(보성강)변에 일제히 피어난 코스모스와 함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음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코스모스를 배경으로하는 멋진 인생샷은 덤이다. '석곡 코스모스음악회'는 석곡면 주민들이 주최하는 '향토음악회'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곡성 5미' 중 하나인 석곡의 별미 '흑돼지 숯불구이'도 맛볼 수 있다.

같은 기간 '2024 제3회 섬진강마을영화제'가 개최된다. 27일 '육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작 '광천동 김환경' 작품을 상영한다.

둘째날 오전에는 섬진강변 마을 길을 걷고 오후에는 '미실란'에서 '조류를 거슬러' 등 3개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 날 '곡성작은영화관'에서 폐막작 '바로 지금 여기' 등 2개 작품을 함께할 수 있다. 이밖에 초청 감독과의 대화, 하모니카 연주, 특별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영화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신청 후 함께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에는 곡성의 대표축제인 '어린이대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곡성에서 '가을 장미'를 감상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곡성군 일원에서 '2024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가 펼쳐진다. 이번 예술제는 전 세계 12개국, 15명의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 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10만㎡ 규모의 백일홍으로 가득한 '곡성 동화정원'에서 펼쳐지는 '아트 콘서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경찰, 담양교육지원청 등 담양지역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담양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

담양군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안전 대책의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담양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캠페인에는 정광선 부군수를 비롯해 담양경찰, 담양교

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함께했으며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춰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군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학기 초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위해 환경, 불법 광고물, 불량 식품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교통과 보행에 있어 어린이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다"며 "담양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드림스타트, 로봇·드론 교실 운영

미래 과학 인재 양성

함평군 드림스타트는 지역 아동들의 과학적 사고를 증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로봇과학 교실과 드론 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봇과학 교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로봇 구조 이해부터 실제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래밍까

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최신 로봇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들이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드론 교실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드론 운영 이론과 실습 비행을 포함하며,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4종) 취득을 목표로 한다. 전문강사의 지도를 통해 아동들은

드론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함평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로봇과학 교실과 드론 교실은 아동들이 미래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과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특기 적성과 역량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